

번호: OP-B-002					
제 목	청소년의 학교흡연예방교육과 흡연행동과의 연관성 Association between tobacco-use behaviors and the school-based preventive program in adolescents				
저 자 및 소 속	김수정, 이성윤, 이순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oo Jeong Kim, Sung Yun Lee, Soon Young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분 야	의료관리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발 표 자	김수정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구 연
<p>목적: 이 연구는 수원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흡연예방교육 경험과 흡연경험 및 지속적인 흡연과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수원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p> <p>방법: 수원시내 각 구 당 2개교씩 8개교의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1,397명, 8개교의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1,8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선정은 4개의 구로 층화한 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학급은 해당학년의 1반, 2반으로 하였다. 학생 설문조사는 조사팀이 조사대상 학교에 방문하여 담임교사 없이 학생들에게 조사목적 및 설문요령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한 후, 자기기입식 설문을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최종적으로 초등학교는 1,39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중학생은 1,86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5년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흡연실태, 흡연지식 및 태도,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만족도, 흡연예방교육 경험에 대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p> <p>결과: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의 흡연 경험률은 남학생 102명(13.0%), 여학생 71명(11.2%)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중학교 3학년의 흡연 경험률은 남학생 95명(29.9%), 여학생 66명(22.4%)이었다. 흡연경험자 중 현재 흡연자는 초등학교 4학년 1명(0.4%)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남학생 6명(1.9%), 여학생 11명(3.7%)이었다. 둘째, 초등학교 학생들의 흡연동기는 호기심 92명(57.9%), 친구나 선배의 권유 36명(22.6%), 가족 및 친척의 권유 13명(8.2%), 아빠의 권유 9명(5.7%) 순이었으며, 중학교 학생들의 흡연동기는 호기심 193명(47.2%), 친구나 선배의 권유 152명(37.2%), 스트레스 해소 등 34명(8.3%), 가족 및 친척의 권유 16명(3.9%), 아버지 권유 14명(3.4%)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또래집단의 권유에 의한 동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초등학교 학생의 77.3%가 학교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육경험도 증가하여 중학교 3학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경험율은 94.8%로 증가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경험율은 저학년에 금연교육을 받을수록, 금연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각 각 낮았으며, 부모와 동거여부, 부모의 흡연력, 학교생활의 만족도 예방교육의 유무 및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경험율과 연관성이 있었다. 중학생의 흡연경험율은 학교성적, 종교, 부모와 동거여부, 아버지 학력, 아버지 어머니의 흡연력, 금연에 대한 지식,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의 만족도, 자기효능점수와 연관성이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 성별, 종교, 성적, 지식점수, 가정생활만족점수가 학생들의 흡연경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결론: 이 연구의 결과 조기교육의 효과가 크고, 중학교 입학전후로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고도 체험적 전문프로그램의 체계화가 요구된다.</p>					